

'후백제 문화유산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전주시·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후백제학회, 후백제 역사문화 공동 학술대회 가저

전주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우범기), 후백제학회(회장 정상기)는 지난 26일 전주역사박물관 강당에서 '후백제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2024년도 상반기 후백제 역사문화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대국가인 후백제의 독자적인 문화유산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학술대회에서 '기와의 통해 본 후백제 물질문화'를 주제로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차인국 선임연구원은 "기와의 제작 변화와 문양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고대국가로서 후백제의 물질문화의 특징을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박영민 연구위원은 '후백제 건물지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후백제 건물지의 특징과 현황을 정리해 소개하고, 통일신라와 다른 후백제만의



전주시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후백제학회는 지난 26일 전주역사박물관 강당에서 '후백제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2024년도 상반기 후백제 역사문화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건축양식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동희 인제대학교 교수는 '경남 서부지역의 후백제 유적과 유물'을 주제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경남 서부지역의 후백제 유적과 역사적 기록 등을 소개하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에 경남 서부지역

도 포함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성권 단국대학교 교수는 '후백제의 불교조각과 합천 죽고리 석조비로자나 삼존상'을 주제로 한 네 번째 주제 발표를 통해 후삼국시대 불교미술 사적 변화양상과 양식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다섯 번째는 '낙수정 범종의 조성과 유전(流傳)'이라는 주제로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발표했다. 보물로 지정된 (傳)전주 낙수정 범종의 특징을 통해 후백제시기에 제작된 것을 밝혀내고, 범종이 출토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낙수정 범종과 관련된 근대 기록물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끝으로 정상기 후백제학회장은 '전북지역의 초기청자 가마와 후백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초기청자 요지인 △사적 진안도동리요지 △고창 반암리요지 △고창 용계리요지 등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과 함께 후백제 중심의 운영 주제와 청자 제작의 기원에 대해 소개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향후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의 학문적 담양성을 확보하고,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와 협력해 다양한 연구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지난 25일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민원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인 공무원 2명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민원신속처리 우수 공무원 시상

전주시, 우수 공무원 2명에 표창장·포상금 수여

전주시는 지난 25일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민원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인 공무원 2명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에는 덕진보건소 노곡기 주무관, 우수상에는 덕진구 건축과 문정훈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민원신속처리 우수 공무원은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사무 468종에 대해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단축처리 시 부여되는 마일리지 높은 순으로 선정되며, 마일리지는 법정

처리일수보다 단축처리한 일수만큼 환산하여 계산한다. 최종점수는 환산한 마일리지 70%와 민원처리 건수 30%를 합산한다.

시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정처리기간 대비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민원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매년 4월과 8월, 12월 총 3회에 걸쳐 마일리지 획득 성적이 우수한 민원 담당자에게 표창장 및 포상금을 지급하며 자긍심과 업무 의욕을 높이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이팝나무 만개' 팔복동 철길 개방

5월 12일까지 주말·휴일 등 전면 개방... 우범기 시장 등 참석 개방 기념 개막식 가저

평소 출입이 통제됐던 팔복동 철길이 이팝나무가 만개한 봄철을 맞아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게 개방된다.

전주시는 지난 26일 우범기 시장과 윤재훈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이 팔복동 북전주선 이팝나무 철길 개방을 기념하는 개막식을 가졌다.

팔복동 북전주선 이팝나무 철길 개방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팝나무와 어우러진 철길 경관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와 코레일 전북본부가 지난 4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성사됐다.

이 협약에 따라 팔복동 팔복예술공장 주변 북전주선 산업철도 약 630m 구간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전면 개방된다.

개방 시간은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2일까지 3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체적인 개방구간은 금학교에 위치한 건널목을 임구로 해서 양방향 기린대로와 신복로까지이다. 시는 개방 시기 동안 시민과 관광객



우범기 전주시장과 윤재훈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이 지난 26일 팔복동 북전주선 이팝나무 철길 개방을 기념하는 개막식을 가졌다.

에게 이팝나무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팔복예술공장 인근에서 26일~27일, 5월 4일~5일, 5월 11일 등 5일 동안 문화행사와 플라마켓, 먹거리 장터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안전관리 및 원활한 동선 이동을 위해 안전요원과 신호수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자갈에 넘어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 안내판과 야자 매트도 설치했다. 또, 편리한 이동을 위해 팔복예술공장 부근에 출입문을 설치했다.

방문객은 덕진구 구렛들3길 26번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과 개방을 위해 빌린 BYC임시주차장 등을 이용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북선관위, 투표지 훼손 선거인 4명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씨 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려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씨와 D씨는 지난 10일 전주시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전하며,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26일 2023회계연도의 꼼꼼한 결산검사를 위해 주요 현장을 점검했다.

전주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최주만 의원)가 지난 26일 2023회계연도의 꼼꼼한 결산검사를 위해 주요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날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 춘향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예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 사업 추진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를 실시해 전주시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등을 확인했다.

결산검사 위촉 위원은 대표위원에 전주시의회 최주만(행정위)의원을 비롯해 윤해정(문화경제위) 전주시의원, 양창원, 오진욱, 박원호 전 전주시 과장, 박종욱, 김동현 세무사 등이다.

최주만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꼼꼼한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결산 검사를 추진해 한정된 재원이 낭비 없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